



3면 문 대통령 "6·10 민주항쟁 국민 오랜 열망이 만든 승리"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0년 6월 11일 목요일 (윤 4월 20일) 제2554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전북도, 가축 폭염피해 최소화 총력

작년보다 폭염일수 증가 예상... 재해보험 예산 확대 쿨링패드·냉수 급수시설·스트레스 완화제 등 지원

전북도는 올해에는 작년보다 상대적으로 폭염일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집중호우 및 폭염피해 예방사업을 조기 추진, 총력 대응한다.

도는 이번 폭염은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가축 피해예방 홍보에 집중, 폭염피해예방 지원사업을 6월이내 조기 완료, 농가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2020년 폭염피해예방 및 가축재해보험 지원예산을 확대, 지난해부터 가축 면역력 증진과 스트레스 완화를 통한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에 5억원을 지원,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에 16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15억원을 확대해, 총 사업비 152억원을 투입, 폭염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한다.

또한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의 지원대상 시설·장비도 기존 '자가발전기, 제빙기, 환풍기, 안개분무기'에 더해 지난해부터 축사 '쿨링패드 및 가축 냉수 급수시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약품지원이나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그 시기를 놓치지 않 되는 만큼 오는 6월 이전까지 조기추진 완료,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장기대책으로 축사시설현대화와 온·습도 조절 및 환기제어 시스템 등이 적용되는 스마트축사 확대, 근본적인 축산환경을 개선, 폭염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14개 시·군 축산부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 오는 9월까지 가축 폭염대책 상황실을 운영, 폭염피해 상황을 빠짐없이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에 폭염 피해 발생시 신속한 손해 평가를 통한 보험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각 보험사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도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확대를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통한 경제피해 최소화 노력, 무더위에 취약한 가축(가금류, 돼지)을 중심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농가집중 지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발효될 경우는 더욱더 축사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폭염특보 발효시 폭염피해예방 농가 대응요령 및 주의사항 문자 메시지 전송 등을 통한 농가 지



'구름 가득해 어두운 하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10일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의 육교 뒤로 구름 낀 하늘이 펼쳐져 있다.

도·홍보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폭염에 취약한 가축(닭·오리, 돼지)은 피해보상을 통한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반드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만기일 도래 이전 적기에 보험 상품을 갱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세계적인 농업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전북에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농업대학을 설립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10일 이 슈브라핑 FAO 세계농업대학 설립하여 전북에 유치하자(통권 223호)를 발간하고, 유엔식량농업기구와 국가차원에서 세계농업대학 설립의 필요성과 전북이 최적지임을 밝히고, 유치를 위한 추진방향을 제안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각종 기후변화, 병충해, 코로나19 등과 같은 자연적·인위적 재해발생으로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농업혁신을 위해 농업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FAO가 발표한 2019년 세계식량안보 및 영양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영양부족 인구는 2018년 기준 8억 2천만 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식량불안을 겪고 있는 국가를 지정했는데, 아프리카 34개국, 아시아 8개국, 중남미·카리브 2개국 등 총 44개 등이다.

따라서, FAO의 식량안보 대응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SDGs)을 위해 제로헹거, 식량안보, 영양개선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FAO의 연

“FAO 세계농업대학 필요 최적지 전북에 설립해야”

전북연구원, 식량안보 대응 인력 양성·교육훈련 강조

세계적인 농업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전북에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농업대학을 설립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10일 이 슈브라핑 FAO 세계농업대학 설립하여 전북에 유치하자(통권 223호)를 발간하고, 유엔식량농업기구와 국가차원에서 세계농업대학 설립의 필요성과 전북이 최적지임을 밝히고, 유치를 위한 추진방향을 제안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각종 기후변화, 병충해, 코로나19 등과 같은 자연적·인위적 재해발생으로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농업혁신을 위해 농업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FAO가 발표한 2019년 세계식량안보 및 영양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영양부족 인구는 2018년 기준 8억 2천만 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식량불안을 겪고 있는 국가를 지정했는데, 아프리카 34개국, 아시아 8개국, 중남미·카리브 2개국 등 총 44개 등이다.

따라서, FAO의 식량안보 대응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SDGs)을 위해 제로헹거, 식량안보, 영양개선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FAO의 연

장에 개발도상국가의 농업, 식량 영양 등의 향상 및 농업 역량을 위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FAO의 세계농업대학 설립 필요성과 명분은 충분한 상태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농업에 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의 핵심적인 가교 역할,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서 경험과 자산 농업의 국제개발협력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 있는 만큼 FAO 세계농업대학 설립 추진에 긍정적인 역할 및 기대가 예상되고 있다.

연구책임 맡은 이동기 박사는 "전북은 FAO 세계농업대학의 설립에 있어 세계최고 수준의 농업교육 및 연구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아시아의 농생명산업 중심지, 대한민국의 대표 농업혁신 주도 지역으로서 최고의 인프라 및 교육훈련 여건을 갖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FAO 세계농업대학 설립은 FAO,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북도 차원에서 중요 과제이기 때문에 설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전북도가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설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 1호 수소충전소 오픈... 완주 수소시대 '활짝'

코로나 여파로 지연... 수소 경제선도지역 한발짝

코로나 여파로 준공 시일이 지연됐던 전북 제1호 완주 수소충전소가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 마침내 시민들에게 오픈됨에 따라 완주군이 수소시범도시 조성, 수소경제 선도지역으로 도약하는데 한 발 더 나아갔다.

완주군(군수 박성일)은 지난 3일 송하진 전북도지사, 박성일 완주군수,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등 수소산업 관계자와 주민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전북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930)에 소재한 완주 수소충전소는 환경부 15억원, 전라북도 25억원, 현대자동차가 20여억원을 투자해 현대자동차 출하대기장 부지에 구축했으며 완주군은 5년간 운영비 지원을 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운영을 맡는다.

완주 수소충전소는 시간당 110kg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구축됐다. 이는 수소승용차 22대 또는 버스·

트럭과 같은 수소승용차 3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사양이다.

또한, 수소전기차가 도심에 누비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할 계획이며 수소충전가격은 kg당 8,800원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2022년 수소전기차 8만대(승용 7만9000대, 버스 2000대) 시대를 맞아 현대자동차에서 생산될 수소버스와 트럭이 전 세계를 누비며 수소경제 전도사가 되길 바란다"며 "전라북도와 수소시범

도시 완주군이 현대자동차와 함께 수소전기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미래차 산업을 적극 지원해 다가 올 수소사회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울산, 안산시와 함께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됐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수소경제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수소시범도시 조성은 주거와 교통, 인프라 관리 등에 총 320여억원을 2022년까지 예산을 투입하고 수소전기차 보급은 올해 101대, 시내버스 노선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도내 화학물질 다량 취급장 전북환경청, 국가안전대진단

전북환경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및 대응으로 점검 연기된 국가안전대진단을 7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도내 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화학사고 이력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실태 확인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다.

특히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한국환경공단,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적정 관리 여부, 화학사고 유발요인 등을 점검한다.

/유호상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